

건축문화 디딤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건축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만나다.'

해마다 열리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지역 건축 관련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다. 한국건축가회 광주시지회,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부로 구성된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지역 건축의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행사다.

제1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광주시민을 찾아간다. 코로나 19로 지난해 온라인에서 행사를 치렀던 데 반해 올해는 오프라인 행사를 재개하고 온라인 전시도 함께 진행한다. 오프라인 행사는 27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리며 온라인 전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개막일인 27일에는 광주시 건축상 등 각종 공모전과 자랑스런 건축인상 시상식과 함께 개막식(유튜브 중계)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협회가 진행했던 다양한 공모전의 수상작을 만날 수 있다. 광주시건축사회가 주관한 25회 광주시건축상에서 금상을 수상한 '첨단 와이어즈파크 지식산업센터' (비주거 부문), 봉선동 다가구 주택 '200' (주거 부문)을 비롯해 전남대학교 교육연구시설 '정보마루', 'FORPLAY', '화정동 1265' '수안동주택', 'Gallery House' 등 수상작들을 만날 수 있다. 또 지역 건축물의 아카이빙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주건축상 역대수상작전에서는 12~16회 수상작 중 일부를 선별해 전시한다.

한국건축가회 광주시지회가 주관한 제8회 '광주건축대전' 수상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공생상생'을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일신방직 화력발전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대상작 '더 트랙 512' (문시후), 최우수상 수상작 '다시 함께하다' (최승연) 등 45점의 일반인 공모 수상작과 함께 시민 아이디어 수상작도 만날 수 있다.

'나무심는 건축인'이 진행되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도 눈길을 끈다. 자투리 공간을 공개공지로 만들어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 등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힐스테이트 백운아파트' (주거 부문)와 농원의 공간을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조성, 공유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세컨드 원' (공공부분) 등이 전시된다.

'장애 없는 세상만들기'전은 광주전남건축가회 공공봉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광주시건축상 금상 '첨단 와이어즈파크 지식산업센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학생 설계프로그램 그 결과물을 전시한다.

그밖에 국내외 건축의 흐름을 만날 수 있는 '올해의 건축 70인 국제전', 광주건축사회 회원 작품전, 광주전남 건축공학과 학생 우수 작품전, 4개 시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전, 김창국(조선이공대 교수)의 '인도 탐방기' 전, 건축민원 무료 상담 등이 열린다.

건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했던 결과물도 만날 수 있다. 지역 건축, 도시,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광주건축-도시 사진 공모전', '꿈꾸는 집, 탐험대'를 주제로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광주 건축-도시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이다.

한편 해마다 지역 건축발전에 영향을 끼친 사람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랑스런 광주 건축인'에는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조 교수는 광주도시공사 사장, 한국 주거학회 회장,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중앙도시계획위원, 대한민국 경관대상 심사위원

27~30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 연말까지 온라인 전시도 진행

광주시 건축상, 건축대전 수상작 조용준 교수 '자랑스런 건축인상'



'광주건축대전' 대상 문시후 작 '더 트랙 512'



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창조농촌을 디자인하라', '축과 조점을 통한 역사 도시 매력 읽기'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 황조근정 훈장, 일본 도시주택학회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1시 음악산책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박상화 작가도 참여

예술가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공연을 진행하는 광주문화예술회관 '11시 음악산책' 일곱 번째 무대에 피아니스트 박은식(전남대 교수)이 출연한다.

27일 오전 11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공연에는 미디어 아티스트 박상화가 함께 해극장을 숲으로 꾸민다.

박 씨는 서정적이면서 몽환적인 시적 환영의 풍경을 구현한 미디어아트 '무등 판타지아-사유의 정원'을 배경으로 쇼팽의 '녹턴'과 피아노의 모든 기교와 아름다움을 구현해낸 곡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 작곡번호 23'을 연주한다.

최근 출시된 쇼팽 '녹턴' 전집 음반을 통해 음악팬들과 평론가들에게 독창적인 음색과 견고한 음악적 구성으로 다시 한 번 호응을 이끌어 낸 박씨는 산타페 국제 콩쿠르,



피아니스트 박은식 미디어아티스트 박상화

'시몬벤티 국제 콩쿠르'를 차지했으며 카네기 홀 등 국내외 무대와 방송에 출연했다.

융합그룹 비법법에서 활동중인 광주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박상화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본전시,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등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개인전 '사유의 숲'을 개최하는 등 지역 미디어아트 초창기를 이끈 대표적 인물이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무용계 대모 고 엄영자,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선정

광주 무용계의 대모 고(故) 엄영자(1940~2020·사진) 전 (사)한국발레협회 광주·전남지부장이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21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육관 문화훈장 수상자로 엄 전 지부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엄 씨는 광주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대학 졸업 후 광주에서 활동하며 평생을 발레 창작과 보급, 제자 양성에 바쳤다.

그는 대학교수와 중·고교 교사 40명 등 2000여명에 달하는 제자를 길러내며 우리나라 발레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



아왔다. 한편 문체부는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계기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1969년부터 매년 문화예술발전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35명을 선정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픽셀화된 구조체들 'DATA'

선영현 초대전, 31일까지 전남대병원 CNUH 갤러리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서양화가 선영현 초대전을 오는 31일까지 전남대병원 1동1층 CNUH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DATA'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선 작가는 대중매체의 상징인 필름을 소재로 한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선 작가는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발명·보급되고 있는 대중매체와 영향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픽셀화 된 구조체들의 다양한 형태 배열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 'Pixel'은 다채로운 형태의 필름과 바탕색으로 구성된 수많은 정사각형 픽셀이 인상적인 작

품이다. 선 작가는 작업노트에서 "나의 작업은 수많은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이미지들이 현실의 재현이 아닌 허상이라는 것을 작품을 통해 밝히고 대중매체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모습을 자각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선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원 회화 석사 졸업, 전남대 일반대학원 미술학 박사 수료를 거쳐 현재 전남대 미술학과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22회 대한민국 회화대전 특선 외 10여회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Pixel' (부분)

전남콘텐츠코리아랩, 28~29일 '웹툰 실전 워크숍'


전남콘텐츠코리아랩은 오는 28, 29일 이틀간 전남 웹툰 창작자 대상으로 웹툰 플랫폼 연재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 '웹툰 실전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될 웹툰 실전워크숍에는 사단법인 웹툰협회 이사이자 석우스튜디오 대표인 이석우 작가와 '루디's 커피의 세계' 시리즈 작가이자 서울미디어코믹스 편집장인 김재현 편집장이 전문가 멘토링에 나선다.

이 작가는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란 주제로 멘토링하며 김 편집장은 원고 피드백에

관한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김 편집장은 서울미디어코믹스 연재를 결정하는 편집장을 맡고 있어 전남 웹툰 창작자들의 웹툰 플랫폼 연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강생 작품에 대한 피드백도 진행, 전남 웹툰 창작자들의 작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는 전남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또는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1-751-029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넌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문화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